

1월 전북 수출 5억6873만 달러

전년동월대비 23.9% 하락... 수입은 2.2% 감소 5억1843만 달러... 세계경기 둔화 주요인

전북지역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3.9% 하락한 5억6,873만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에선 2.2% 감소한 5억 1,843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의 석유화학 제품이나 농기계 건설광산기계(군산공장)에서 유럽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산업 구조특성상 무역수지 측면에선 나온 결과로서 향후 전북도 무역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특히 1월 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4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북지역 5,03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2023년 1월 전북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5억1,843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191만 달러 감소)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한 589억 달러였다.

1월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건설광산기계(\$5,707만, 28.3%), 동제품(\$4,608만, -33.3%), 합성수지(\$4,125만, -

40.6%), 농기계(\$3,971만, -22.5%), 정밀화학원료(\$3,807만, -49.0%)로 확인됐다

이중 건설광산기계는 미국(\$1,300만, 1.8%), 벨기에(\$731만, 135.3%) 등이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린 후 수출 전망은 밝지만, 반면 농기계의 경우 미국 수출 27.3% 감소로 전년 대비 수출 하락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1억 2,520만, -18.3%)은 농기계(\$3,172만, -27.3%), 건설광산기계(\$1,300만, 1.8%), 철강관

(\$1,071만, 7.9%)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중국(\$8,051만, -39.5%)은 종이제품(\$1,439만, -5.1%), 정밀화학원료(\$1,090만, -30.6%), 동제품(\$990만, -71.8%) 등 주력 제품 수출 부진이 크게 늘었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세계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수입 수요 감소로 전북지역 주요 수출품목 영향도 불가피하다. 어려운 시기 수출 반등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은 익산시니어클럽과 함께 '시니어카페 익산점(Cafe in-情)'을 지난 24일 개점했다.

문화적 감성 카페로 탈바꿈

전북우정청-익산시니어클럽 '시니어카페 익산점' 개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을)은 익산시니어클럽(관장 백종환)과 함께 '시니어카페 익산점(Cafe in-情)'을 지난 24일 개점했다.

'시니어카페 익산점(Cafe in-情)'은 지역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익산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익산우체국 창구에 설치됐다.

이번 익산점은 전주, 전주경원동에 이어 세 번째로 우체국에 개점한 시니어카페이다.

시니어카페 익산점은 향긋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4명의 어르신 바리스타가 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 기존 시니어 카페와는 달리 지역 예술작가의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카페 내에 마련해 문화적 감성을 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예정이다.

김꽃마을 청장은 "전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 공헌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공적역할을 확대하고 사회 활동을 위한 어르신들의 밀거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환 관장은 "카페공간에 아름다운 미술작품 전시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 전달과 이쁘하고 편한 시니어카페이다.

고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북본부

도내 농촌 생산기반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올해 사업비 1,008억 원을 들여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7지구(준공, 계속, 설계), 3,165ha로써 314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이중 부안 보안지구는 공정을 90%로 현재 평야부 용수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 배수개선사업은 최근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로 등의 홍수배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농협은 지역 농·축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 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해 건전여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호금융 구현

전북농협, 건전여신 추진협의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역 농·축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책임 있는 상호금융 구현을 위해 건전여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건전여신 추진과 불법대출 근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조직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을 재무장하고자 개최됐으며, 임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준수, 상환능력 중심의 건전여신 추진, 제규정 준수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한 불법대출 근절을 주

요 골자로 한다.

선서 후에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상호금융 여신팀장으로부터 여신 추진 시 임직원 주의사항 및 건전여신 추진 우수사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자세히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일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확립과 여신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기업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 임직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해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수출업체와 수출활성화 논의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지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주)에버굿(대표 김한상), 수출 참여 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주)에버굿은 지난 2022년 전북의 배, 밤, 양파, 복숭이를 베트남 대만 중국 등에 210만불을 수출했으며 2023년에는 신규품목으로 고구마, 딸기, 가공식품(군고구마발랭이 양갱) 등을 수출하기 위해 전북농협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전북중기청,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와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난 23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

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와패키지가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와패키지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일에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